여동생들 해냈다…45년 만에 亞 배구 제패

한국 여자 U-16 대표팀이 9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U-16 여자배구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 대만을 3-2로 꺾고 정상에 오른 뒤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U-16 여자배구, 亞선수권 대만에 3-2…'황금세대' 재탄생 기대

'리틀 김연경' 손서연 등 대표팀, U-17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

한국 16세 이하(U-16) 배구 태극 여전사들이 2025 U-16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침체에 빠진 여자배구의 '황금세대' 재탄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승여 금천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U-16 대표팀은 9일 요르단 암만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대만을 풀세트 접전 끝에 3-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연령별 대표팀이 아시아청소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건 남녀부를 통틀어 박철우(우리카드 코치)와 문성민(현대캐피탈 코치)이 주축을 이뤘던 제12회 대회 때 우승한 이후 21년 만이다.

여자팀 우승은 한국에서 개최됐던 1980년 아시아청소년선수권 제패 이후 무려 45년 만이다.

특히 이번 대회 예선에서 우승 후보였던 중국에 2-3으로 졌을 뿐 준결승에서 제1회 대회 챔피언 일본을 3-2로 꺾은 여세를 몰아 중국을 4강에서 누른 대만마저 돌려세우고 우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여자배구는 '배구 여제' 김연경을 앞세워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창조했지만, 김연경 은퇴 후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올해 여자 성인 대표팀이 참가했던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선 1승 11패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VNL 잔류에 실패했다.

VNL 강등 여파로 여자 대표팀을 이끌어왔던 페르난도 모랄레스 전 감독이 계약 연장에 실패해 새 사령탑 공개모집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 최강을 넘어 세계 톱10에 자리 잡은 일본에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 국제대회 때 1.5진급을 파견한 일본에 3-2로 이겼지만, 통산 상대 전적 56승 94패로 뒤져 있다.

이 대회 직전까지는 2021년 7월 31일 도쿄 올림픽 예선 4차전 3-2 승리 이후 4연패 중이었다.

FIVB 세계랭킹도 일본이 이탈리아와 브라질, 튀르키예, 폴란드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0위까지 밀려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자고교 등록 선수가 18개 팀, 204명이었던 반면 일본은 3852개팀, 5만7103명이었던 현실이 가져온 귀결인 셈이다.

그런 열악한 조건을 딛고 우리나라 U-16 여자대표팀 선수들이 아시아선수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건 작지 않은 성과다.

대한배구협회 여자경기력향상위원장인 박미희 KBS N스포츠 해설위원은 "우리 중학교 여자 선수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우승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은 건 값진 수확"이라면서 "이 선수들이 이르면 3년 안에 성인 대표팀으로도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U-16 여자 대표팀은 이번 아시아선수권 4강 이상 성적으로 내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FIVB 17세 이하(U-17)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번 U-16 아시아선수권 우승을 합작했던 '리틀 김연경' 손서연(경해여중)을 비롯해 장수인(경남여중), 박예영(천안봉서중), 이다연(중앙여중) 등 선수들이 주축을 이뤄 내년 세계 무대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U-16 아시아선수권을 제패한 중학생 태극 여전사들이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첫 메달 쾌거를 이뤘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과 올림픽 4강 신화를 이뤘던 도쿄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할 '황금세대'로 커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페퍼스 '셧아웃 패'로 4연승 좌절

JINAIR V-LEAGUE 2025~2026

정관장에 0-3으로 져 1라운드 4승2패로 2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9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에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했다. 〈KOVO 제공〉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구단 첫 4연승에는 실패했지만 성공적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9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에 세트스코어 0-3(22-25 18-25 20-25)으로 패했다.

패배 속에서도 외국인 선수 조이는 공격 성공률 48.84%로 팀 최다 24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다. 시마무라가 9점(공격 성공률 57.1%)을 올렸고, 박정아 6점, 임주은 3점이 뒤를 받쳤다.

1세트에서는 조이와 임주은의 연속 서브 득점이 나오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페퍼스는 경기 중반 박정아와 박은서의 득점이 더해지며 한때 17-13까지 앞섰지만, 정관장 박혜민과 외인 자네테의 공격을 막지 못하며 22-25로 역전패했다.

2세트에서는 정관장의 블로킹에 고전했다. 상대 블로킹에 연이어 막혀 점수 차가 16-22까지 벌어졌다.

페퍼스는 박수빈 대신 박사랑을 투입한 뒤 3점을 따라붙는 등 추격에 나섰지만, 흐름을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18-25로 세트를 내줬다.

3세트에서도 정관장의 높이와 수비를 넘지 못했다.

정관장은 세트 중반 이후 블로킹 포인트를 쌓으며 페퍼스 공격을 봉쇄했다.

정관장은 폼이 올라온 정호영의 블로킹과 이선우의 활약을 더해 분위기를 주도했고, 시마무라와 조이의 맹활약에도 페퍼스는 20-25로 마지막 세트까지 내주며 셧아웃 패를 당했다.

올 시즌 처음 V리그에 나선 아시아쿼터 시마무라는 1라운드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상대 팀들의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맞대결에서 '패장'이 됐던 GS칼텍스 이영택 감독 역시 "시마무라 선수가 잘해서, 남은 경기 동안 열심히 분석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시마무라는 "일본에서 활동 할 때에는 공격을 그렇게 많이 담당하진 않았는데 해보니 재미있다. 선수들 덕분에 팀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낸 것 같다"고 1라운드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시마무라의 이동·블로킹, 조이의 화력, 임주은의 서브·속공 블로킹이 분수령마다 터졌고, 조이의 초반 부상 공백을 채워준 '신 에이스' 박은서와 베테랑 박정아까지 수비 조직·리시브 안정도가 빛나 달라진 페퍼스를 보여준 1라운드였다.

한편 이날 승리로 정관장은 3승 3패(승점 7)를 기록, 리그 순위를 두 계단 끌어올리며 5위에 자리했다. 페퍼스는 4승 2패(승점 10)를 기록하며 리그 2위 자리를 지켰다.

페퍼스는 오는 13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흥국생명과 2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프로야구 감독 몸값 '30억 시대'

LG 염경엽 감독, 3년 연봉 21억·계약금 7억·옵션 2억

광주일고 출신의 염경엽〈사진〉 LG 트윈스 감독이 역대 KBO리그 사령탑 최고 대우로 재계약했다.

프로야구 LG는 9일 "염경엽 감독과 3년 최대 30억원(계약금 7억 원·연봉 총 21억 원·옵션 2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LG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통합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사령탑'이라는 빛나는 타이틀을 얻은 염 감독은 KBO리그 최초로 감독 몸값 30억원 시대도 열었다.

염 감독은 김태형 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2020년 두산 베어스와 3년 28억원에 계약하며 작성한 'KBO리그 사령탑 최대 규모 계약'을 경신했다.

또한 염 감독은 1995년 고(故) 이광환 전 감독, 1999년 천보성 전 감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재계약에 성공한 LG 사령탑이 됐다. 2000년대 들어 LG와 재계약한 사령탑은 염경엽 감독이 처음이다.

염 감독은 2022년 11월 LG와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3억원, 연봉 5억원, 옵션 3억원을 합해 총액 21억원에 계약했다.

당시 염 감독은 '우승 경험이 없는 우승 청부사'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염 감독은 2014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를 이끌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삼성 라이온즈에 우승 트로피를 내줬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사령탑이던 2019년에는 정규시즌 막판 두산에 정규시즌 1위를 빼앗기고 플레이오프(PO)에서 키움에 패하는 상처도 입었다.

염 감독은 "그동안 내가 받은 성적표에 '우승 기록'이 없으니,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했다. 선수, 프런트, 코치, 감독으로 경험을 쌓고 야구장 밖에서 배운 걸 모두 쏟아부어 꼭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내가 떠난 뒤에도 LG를 계속 우승에 도전할 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떠올렸다.

계약 기간 3년 동안 염 감독은 목표를 모두 이뤘다.

염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23년에 86승 2무 56패를 거둬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승리했다.

LG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통합우승을 차지했고, 염 감독도 무관의 한을 풀었다.

2024년에는 정규시즌을 3위(76승 2무 66패)로 마치고서 플레이오프(PO)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고배를 들었다.

절치부심한 올해에는 85승 3무 56패로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하고서 한국시리즈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염 감독은 2025시즌, 선수 기용 폭을 넓히며 "성적과 육성을 모두 잡았다"고 평가받았다.

염 감독의 3년 정규시즌 성적은 433경기 247승 7무 178패(승률 0.581)다.

염 감독은 "내년에도 정상에 서겠다"며 LG 최초의 2연패를 새로운 목표로 내세웠다. /연합뉴스